

2020년 11월1일부터 2021년 1월31일까지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생명사랑 운동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MS 회원

강금화 강남정 강동건 강수영 강순자 강안나 강정희 강종두 강준민 강지선 강철희 강현숙 견윤창 고정남 고정준 고선미 고성연 고옥이
고옥현 고정숙 고태준 고현준 곽경자 곽미란 곽승현 곽창훈 구본정 구인순 권경숙 권구철 권기웅 권수미 권여정 권영균 권용운 권용일
권현명 김갑훈 김 경 김경숙 김경자 김경희 김계환 김광명 김규자 김나연 김대원 김명숙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숙 김미순 김미현 김미희
김민숙 김민희 김민희 김병수 김병숙 김병천 김병학 김보현 김복순 김상범 김석우 김선미 김선자 김설연 김성남 김성숙 김성애 김성옥 김성현 김세연 김세영
김세은 김소연 김수정 김순례 김시화 김신실 김신예 김애경 김애경 김연수 김영란 김영수 김영숙 김영희 김옥남 김옥순 김옥자 김옥희 김용근 김용숙 김우란
김원순 김유영 김은경 김은정 김은정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이환 김인순 김인에 김일순 김재숙 김정순 김정운 김정인 김정호 김종애 김종일 김주원 김주택
김주현 김중기 김중렬 김지선 김진아 김진원 김진호 김찬실 김채환 김춘애 김춘기 김태미 김태은 김태현 김태형 김해련 김행미 김현리 김현미 김현미 김현주
김현주 김형재 김형진 김형재 김혜경 김혜순 김혜정 김호석 김홍희 김호순 김호정 김훈혜 김유희 김홍주 김희정 나아란 나애란 나종하 남궁성 남궁혜경
남윤숙 노미화 노 진 명연옥 모지영 문복희 문정은 문정인 문정자 문희경 문희숙 민경숙 민은식 박가원 박경선 박경화 박경화 박광애 박귀영 박금련 박병준
박상근 박서정 박선영 박성희 박순옥 박순철 박순혜 박순화 박승미 박승희 박양숙 박영희 박용준 박윤정 박윤희 박은희 박인숙 박점례 박정돈 박정수 박정숙
박종권 박종문 박종임 박주경 박지영 박지현 박진남 박진남 박진우 박진찬 박진현 박해동 박해숙 박현경 박희경 방정인 반준우 방기심 방지연 방현숙 배민희
배서현 배서현 백수정 백형자 백희정 변창호 서동철 서순이 서연주 서영민 서영애 서영호 석은주 선창민 성경자 성경숙 성화스님 소경희 손경연 손미나
손행덕 손희경 손희경 송계화 송명숙 송미숙 송민숙 송재물 송주영 신규갑 신남철 신남희 신동란 신동욱 신두호 신문식 신선우 신선혜 신영란 신우섭 신은심
신재희 신정현 신종훈 심수연 심하진 심형창 심홍순 안명숙 안미숙 안복희 안성민 안인숙 안재홍 안지원 안진희 안춘미 양상규 양승례 양애숙 양원태 염태용
연영진 오기백 오다혜 오수경 오수현 오우영 오종택 오진영 오현화 오현희 오형근 왕애리 우유선 원용열 원정환 유미영 유보라 유애희 유윤석 유진숙 유현선
유호심 유효경 윤문식 윤병선 윤보현 윤선주 윤소연 윤영균 윤영옥 윤인숙 윤정규 윤정숙 윤정애 유주영 유준구 윤희도 이강욱 이경애 이경혜
이광수 이금수 이금순 이금순 이나연 이대성 이도호 이두은 이명순 이명윤 이명재 이명화 이미애 이미영 이미영 이민주 이백채 이병호 이복례
이봉운 이상희 이선순 이선아 이수연 이수자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승미 이승원 이신애 이여진 이영남 이영심 이영애 이영희 이예은 이우열
이우진 이원희 이윤령 이윤승 이은경 이은미 이은미 이은선 이은자 이은자 이은지 이은희 이의환 이인숙 이재열 이재은 이정민 이정선 이종례
이주기 이주연 이주영 이지옥 이지은 이 진 이진경 이진희 이찬희 이창열 이춘자 이태형 이해숙 이해원 이해원 이현숙 이현주 이현지 이혜경
이혜영 이홍근 이효정 이희재 임상원 임수현 임수희 임숙영 임용서 임은선 임은이 임재경 임홍선 장길수 장 미 장상화 장선심 장승철 장여백
장여운 장영진 장인경 장인남 장정옥 장혜교 장희진 전경숙 전기철 전민자 전선윤 전성원 전성혜 전수경 전순택 전영철 전은국 전지연 전철자
전철호 전현민 전해림 전해숙 정경례 정경옥 정구상 정기현 정기훈 정동인 정만진 정미영 정미영 정미자 정병택 정선미 정선우 정선희 정성래
정성순 정수빈 정수아 정신애 정여진 정영관 정영석 정영한 정용환 정원대 정원재 정윤식 정은선 정의광 정현영 정형심 정혜정 조경오 조성환
조애진 조영근 조영숙 조윤성 조은경 조지혜 조현경 조현미 조현주 조희진 주선희 주수연 지순정 지에이에스디(주) 진상기 진의연 진재수
진태을 차태수 천승원 천정인 최경숙 최남경 최민희 최미정 최상영 최선영 최순정 최영미 최옥명 최은정 최은주 최자현 최정열 최준순 최준식 최지현
최지현 최진옥 최해옥 최해월 최향숙 최흥숙 풍명영어도서관 하미화 하연화 하영리 한금식 한영규 한영선 한명숙 한미경 한보희 한상민 한상이 한선희
한송이 한수아 한숙원 한정수 함윤수 함윤희 허공균 홍기표 홍성진 홍우정 홍윤주 홍인선 홍정임 홍찬영 홍효기 황소영 황아영 황영은 황은영 황은영 황지애
황태성 황혜숙 황혜영 황혜영 황화선

평생 회원

황선범

특별 후원

고양YWCA이사회 승리교회 예수승리교회 임승열 하나은행 한두레자치회 흥현정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고양 YWCA

www.kyywca.or.kr



Goyang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마음을 나누는 묵상’

입춘을 지나, 사순절이 시작되고, 아이들의 개학을 앞둔 이 시기는 본격적인 한해살이의 시작이다. 숨길 수 없는 봄 념 새와 끈덕진 겨울의 자취 가운데, 어느 날은 앞당겨 봄을 살다 어느 날은 꽃샘 추위에 여지없이 된통 당하곤 하지만, 1월과 다른 3월의 시작은 작은 설렘을 해마다 나에게 안긴다. 본격적인 새해와 봄을 맞는 나의 의식은 대청소로 시작한다.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산란할 때 청소가 주는 위안과 명쾌함을 좋아한다. 어차피 돌아서면 다시 쌓이기 시작하는 먼지와 개털, 가만히 있지 않는 살림이지만 봄맞이 대청소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준다.

두툽한 겨울옷과 침구를 정리하며, 창문을 활짝 열어 겨우내 쌓인 먼지를 털어 내며, 지구의 먼지 같은 내 존재를 상기한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시103:14). 춤고 귀찮아 좀 따뜻해지면 하자고 노력하고 묵혀둔 자리도 걸레를 빨아 개운하게 닦아낸다. 걸레를 빠니 진한 구정물이 나온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51:10).

청소를 마치고 물건을 정리한다. 수납할 물건을 보관하고, 나누거나 버릴 물건을 분류한다. 나그네 인생을 망각하고 소유와 수집에 흔들렸던 욕망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백분 활용한다.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2:11).

자주 사용하는 오디오 위에 놓인 2021년 세월호 달력을 읽는다. 어느덧 26살이 된 아이들, 월마다 생일 맞는 아이들의 얼굴과 짧은 소개글을 읽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 2월에는 22명의 아이들이 생일이다. 다 헤아릴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아들의 죽음을 겪은 하늘 아버지의 위로가 올해도 가정마다 있기를 간구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5:4).

코로나19로 중단된 흐름이 많다 해도, 우리를 지탱하는 일상과 살림은 저마다 공기처럼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다. 조물주는 매일 만물의 살림을 감당하고, 모든 생명있는 존재들은 신음하는 지구별 곳곳에서 죽음을 마주하고 생명 살림을 지켜내고 있다. 돌아서면 쌓여 있는 먼지들처럼, 오늘도 이 땅 곳곳은 엉망진창 구정물을 쏟아내고 있지만, 작은 청소와 살림이 기도가 되어 맑은 자리를 만들어 간다.

사순절, 만물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봄맞이 대청소 기도를 드립니다. 세속에 찌든 일상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욕망과 소비를 정돈하며, 생채기 난 자리를 보듬고 회복하는 작은 예수로 우리를 빚으소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1:20).

이진아 나들목일산교회 목사

발행 고양YWCA 발행인 윤정애 편집인 이경애 홍보출판위원장 윤선영 윤정애, 정수빈, 최향숙, 함은희 편집 남궁혜경, 박선영 발행처 고양YWCA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5F 전화 031)919-4040 팩스 031)913-4042 메일 ywca@kyywca.or.kr

2021 회원확대 운동

고양YWCA는 미래를 지향하는 젊은 사고와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젊은 운동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권익보호에 힘쓰는 여성 운동체 사회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기독 운동체 회원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회원 운동체입니다.

기간 2021년 3월 ~ 5월

회원혜택 일산백병원 의료비할인(선택진료, 비급여)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의료비할인(비급여)
척사랑신경정형외과 의료비할인
사과나무치과(주엽, 후곡, 백석, 일산2지구) 의료비할인(비급여)

후원계좌 국민은행 293-01-0002-640 (예금주:고양YWCA)
가입문의 031-919-4040



고양YWCA
회원가입

YWCA회원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vol. 105

봄 2021

고양 YWCA

강남역 살인사건 5주기에 부쳐...
그대의 생각은 오늘 ‘누구’를 공격하고 있나요?

남궁혜경 국장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여자라서 살해된 것입니다’
‘화장실 불법촬영에 이어 흥기로 살해당한 이유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니 어디까지 조심하고 불안해해야
합니까?’
‘여성도 인간입니다’
‘오빠가 지켜줄께~ 아니!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안전한 세상>’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술집에 도착. 달큰하게 취해 화장실에 갔다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 꾸벅꾸벅 졸
며 “다 왔습니다”라는 말에 정신차리고 내리는 이런 행동들이 ‘남자만 가능한 나라’는 ‘살기좋은 문명국’이라고 부르
기 어렵습니다. - 프로레슬러 김남훈’

- 강남역 살인사건 후 시민들의 추모글 중에서 -

2016년 5월 17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화장실에서 살해한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에 대
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경찰은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살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사건을 접했던 여성들은 단
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선별하였던 남성의 행동을 ‘여성혐오범죄’로 명명하였다.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이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많은 차별과 폭력을 말하고 연대하였다.
끝없이 변주되는 ‘OO녀’로 대표되는 여성 집단에 대한 비하와 조롱, 외출시 공중화장실 조차 불법촬영에 대한 공포
로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기막힌 현실, 끔찍하게 진화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디지털성폭력 범죄의 확산, 가장 친밀
한 관계인 가족과 연인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들의 증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방식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은 일상 곳곳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체험적 자각을 하였고, 이 사건을 나와 상관없는 여성이 겪은 사건이 아닌 나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도 겪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이 사건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여성에 관한 다양한 의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힘이 되고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부터 5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새로운 여성혐오범죄를 마주하
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필자의 눈에 들어온 기사 하나 - 회사일로 기분나쁘다며 40대 남, 처음보는 10대
여성을 화장실까지 쫓아가 5차례 벽돌로 가격!
2020년 청소년 대상 성착취의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었던 N번방사건은(N번방은 지금도 끝없이 다른 옷을 입어가며
진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여성의 몸을 어떻게 대상화하고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그 뿌리를 둔다. 성별사회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은 여
성에게 요구되는 특성을 사회적으로 강요받는다. 여성혐오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강요된 여성성을 거부할 때, 여성
을 소유·지배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위에서 태동한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서는 흔들린다. 욕망을 충족시키
는 수단으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여성의 위치는 전략한다.



불평한 성별권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세상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이 살기에도 어려운 세상이다.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사회적 기대와 시선이 있기 때문에..

여성혐오가 없는 세상! 사실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성차별의 역사는 모든 다른 차별의 역사보다 길고 오래되었기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그리스도인이란, 철저히 남성중심적이었던, 여성이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인식되
지 못하고 소유물로 간주되었던 1세기의 유대사회에서 예수님이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위치를 전복시켰는지
를 묵상해야 한다.
당시 문화에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했던 간음한 여인을 향한 대중들의 판단을 뒤집고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셨다.
회당의 공공예배를 남성들이 독점했던 시대, 남성들로부터 분리되어 회당뒤편으로 몰려나 있었던 허리를 조금도 펴
지 못하는 여성을 앞으로 불러 고쳐주셨던 순간. 견고한 사회적 관습을 깬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의 세계관을 뒤흔들
었을 것이다. 인종적 차별에, 부도덕함을 지닌 여성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물음에 갈급해 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해주셨다. 이 외에도 복음서에 기
록된 수많은 여성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깊이있게 묵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예수님은 견고하게 뿌리박혀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균열을 가했으며 그것은 당대에는 매우 혁명적이며 파격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의 소유물로 밖에 간주되지 않았던 당시의 여성들을 가치와 위엄을 지닌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주셨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 안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편견과 차별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시선으로 사
람을 대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민감하게 인
식해야 한다. 무의식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형성되고 학습된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 마주할 때에만이
특정한 대상을 향한 혐오가 멈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생각은 오늘 ’누구‘를 공격하고 있나요?’ - 강남역살인사건 후 시민들의 추모글 중에서 -

제32회 고양YWCA 정기총회

박선영 과장

고양YWCA 제32회 정기총회를 1월 28일(목) 오전11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안전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한 이번 총회는 준비와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82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잘 마칠 수 있었다. 개회예배는 박규성 담임목사(승리교회)의 '하나님의 기쁨 YWCA' 설교말씀과 고양YWCA회원의 기타연주가 있었다. 예배후 표창으로 승리교회에 감사패를 수상하였고 봉사상 으뜸도우미상 평생회원 회원증모상 직원근속상 특별활동 수상이 있었다.

본회의는 전회의록 통과 2020년 감사 및 결산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으며, 2021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이사공천위원 인준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정애 회장은 총회사에서 작년한해 코로나19의 상황가운데서도 고양YWCA가 시민단체로서의 책무성을 다하며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회원들과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올해에도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핵 없는 생명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탈핵운동과 대안에너지 운동을 실천하며 여성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였다.



2021년 고양YWCA 3대 중점운동 과제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목표	탈핵 에너지전환과 자립 지역사회 만들기	여성이 참여하는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평화교육과 민간교류 확대로 평화체제 만들기
세부 과제	· 지자체 탈핵에너지 정책 수립 · 핵발전소 감축과 제도 마련 · 식품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여성이 주도하는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축 · 성폭력과 성차별 없는 사회 구축	· 평화·통일 교육과 평화 인식 확산 · 여성 평화·통일 담론과 참여 촉진 · 대북 협력 사업 기틀 마련
공통 과제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서는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 청(소)년 회원과 전문 활동가 양성 · 지역, 환경, 경제, 교육, 인권, 성평등, 평화 등 각 분야에서의 청(소)년 당사자 이슈 발굴과 활동 강화 ·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과 연대 강화		

2021년
신임이사 한마디



김용숙 신임이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어려운 시기에 고양YWCA에서 기도하며, 위로하며, 위로 받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심에 먼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행 1:8)

기도 중에 주님께 받은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게 하신 귀한 고양YWCA의 동역자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작은 밑알이 되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박연희 신임이사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내 맘을 울렸습니다. 하나님 고양YWCA에 쓰임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구촌을 가장 긴 마라톤으로 이어가는 YWCA선배들의 릴레이에 나도 이제 바통을 받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번영만이 아닌 지역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마라톤이기에 그 땀이 신나고 즐겁습니다. YWCA를 통해 사람을 바로 세우는 힘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선배들의 기도와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통을 이어가서 다음주자에게 넘기기까지 나 역시 선배들처럼 사랑으로 전신갑주를 채워야겠습니다. 2021년 고양YWCA에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선배들의 그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를 기도합니다.

유호린 신임이사

2021년부터 고양 ywca 신임이사로 활동하게 된 유호린입니다. 사실 저는 다른 이사님들 보다 경험도 연륜도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혹은 Y에 누를 끼치는건 아닌가 걱정스런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런 자리를 맡겨주신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젊은 패기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빈 신임이사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엄마가 되어서는 아이와 가정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Y공동체를 만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과 사회를 들여다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라보지만 않고 조금 더 다가가 손 내밀고 미약한 힘이라도 함께하려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여성이 진정한 평등과 평화를 누리는 내일을 위해 삶의 한 조각을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에코페미니즘 스터디]



고양YWCA '평행'(평생행복하게 배우자)공동체 모임에서는 2월9일 (화)부터 매주 1회 '에코페미니즘' 관련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코로나 19시대를 살아가면서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모임은 성장주의와 소비중심의 삶이 가져온 심각한 결과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위기의 세계에서 삶의 내용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지구생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생활에서 실천해보고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부터라도 뭔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고양YWCA 신임이사교육



1월19일(화) 고양YWCA는 제32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김용숙, 박연희, 유호린, 정수빈 신임이사를 대상으로 신임이사 교육을 진행하였다. 1부 여는 예배와 2부 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교육에 앞서 YWCA 활동을 통해 각 개인의 삶의 변화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나누는 시간은 개인의 성장이 공동체의 성장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2부 교육내용은 YWCA 역사이해하기, YWCA 중점운동 이해하기, YWCA 조직이해, 이사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진행하였다. 4명의 신임이사는 함께 교육에 참여해주신 이사님들과 함께 겸손과 섬김, 살림의 정신을 가지고 맡겨주신 이사직을 감당하겠다는 귀한 고백을 통해 서로를 지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고양YWCA 신임이사들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또 응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 마스크 전달



한국YWCA연합회에서는 한국씨티은행과 협력하여 2003년부터 여성지도자상을 제정하여 한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제18회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대상, 임선에 감독이 젊은지도자상을, 추적단 불꽃이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제18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서 상금 전액을 한국YWCA에 후원하면서 코로나19로 방역물품 지원이 필요한 곳곳에 사용할 것을 요청하여 고양YWCA도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진행하였다. 고양YWCA에서는 가사 돌봄 노동자, 소상공인, 청소용역 노동자, 지역 어르신, 시민단체 활동가, 산황산 지킴이 활동가 등등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였다.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양여성들의 작당모임

- 기후위기·코로나 19시대, 에코페미니즘에서 길을 찾다!

코로나 19 이전의 자유로웠던 삶으로 회복하는 것, 꿈꾸시지요?

그런데 어찌죠?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고작 7년!

2018년 발표한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의 기온상승을 1.5도내로 제한해야만 지구의 기후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데 이 제한에 실패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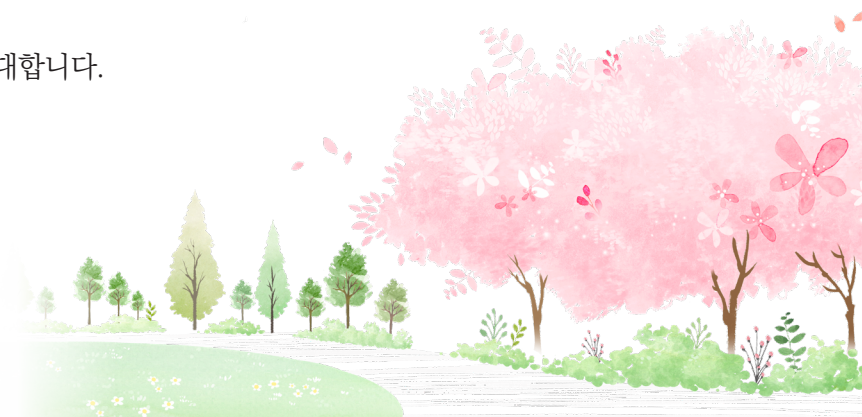
코로나 19상황보다 더한 상황이,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 찾아 올거라고...

우리 미래세대가 아닌 지금의 우리가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직접 경험하는 세대가 될거라고...

진짜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뭐라도 해보고 싶은 고양여성들의 작당모임에 초대합니다.

- 기 간 | 2021.4.22.-10.31
- 참여자 | 고양시민 15명
- 참가비 | 3만원
- 문 의 | 고양YWCA(031-919-4040)
- 후 원 | 고양시 성평등기금



일정	내용	강사
1차 : 4/22(목) 10:00-12:00	에코페미니즘 - 기후위기·코로나 19시대를 읽다	김양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2차 : 4/27(화) 3차 : 4/29(목) 10:00-12:00	에코페미니즘 - 한국판 그린뉴딜, 고양시 그린뉴딜을 읽다 - 마을에서 준비하는 그린뉴딜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4차 : 5/4(화) 5차 : 5/6(목) 10:00-12:00	고양시 그린뉴딜정책 - 젠더이슈찾기, 워크숍 등	박지영(경기도 성별영향컨설팅트)
6차 : 5/11(화) 10:30-12:30	플라스틱 프리 제로웨이스트 운동 - 삶을 바꾸다	양래교(알맹상점 공동대표)
5월~10월	- 플라스틱관련 다큐, 정보스터디 - 제로웨이스트숍 탐방(더피커, 알맹상점등) - 고양시 그린뉴딜정책 젠더이슈찾기 -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플라스틱프리 챌린지운동 - 캠페인활동 등	스스로 학습, 활동
10월 말	결과보고회 - 고양시 그린뉴딜정책 젠더관점의 정책제안 -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	



키다리 학교

키다리학교란?
"키우자 Y다운 리더"의 약자
YWCA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 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청소년활동



플라스틱의 반격

1950~2015년 전 세계 플라스틱 누적 생산량 무려 83억톤
이 중 63억톤은 폐기물이 되었고 6억톤만이 재활용
우리의 생산과 소비는 지구를 병들게 하고있다.



그린 메이커스

교육 - 플로깅 - 캠페인 - 온라인 캠페인 등 15회
청소년들이 전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이야기
우리의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2021 활동주제 "플라스틱"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
"플라스틱 쓰레기"



플라스틱 이제 그만!

2021년 키다리학교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이야기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의 이야기

고양YWCA회원



숙소에서 바라본 풍경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솔직히 확진자의 숫자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지 경계심이나 경각심이 좀 떨어진 상태였다.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고 무사히 넘어가리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아들이 '엄마 열이 좀 나요'하는 말에 겁이 덜컥 났고 '빨리 가서 검사해 봐'하고 검사소에 데려다줬다. 그러면서도 '별일 없을 거야'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 몰라 가족이 함께 식사하지 않고 따로 식사하고 아들을 방에 격리시켰다.

그 다음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남편은 도시락을 들고 출근을 했고 뒤이어 보건소에서 아들의 확진 통보를 받았다. 설마가 결국은 현실이 되었다. 현실이 되었어도 믿어지지 않았다. 보건소에서 가족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방문을 요청했고 딸아이와 나는 보건소로 남편도 통보를 받고 급히 검사를 받으러 갔다. 검사소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는 동안에 다리가 풀리고, 긴장한 탓에 뒤통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자가격리라는 안내서와 소독약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자가격리자의 앱을 깔고 하루에 두 번 체온을 재서 올리는 일을 해야한다는 통보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보건소직원의 전화와 그동안 다녔던 동선의 파악, 누구를 만났고, 누구랑 밀접접촉을 했는지 하나하나 기억해 내야하고 표로 만들어서 보건소에 보고해야 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혹시라도 확진이 되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 미리부터 걱정이 되고, 누군가 나로 인해서 삶의 제약 받게 될거라는 생각 때문에 괴롭기까지 했다. 일단 아들은 확진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증세가 심하지 않아서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기로 했다. 1시에 태우러 온다는 통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면 가지고 갔던 물건을 휴대폰 빼고는 다시 들고 나올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입고 갈 옷과 신발은 허드레 옷으로 물건은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입소를 했다. 아들은 일단 킨텍스의 캠핑카로 입소를 했고 다시 생활치료센터에 자리가 나면 옮기기로 했다. 나머지 가족은 조마조마 하면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우리부부는 양성, 딸은 음성 통보를 받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일단 음성인 딸은 양성인 우리부부와 분리하는게 좋겠다는 보건소직원의 권유로 자가격리 센터로 옮겼다. 우리부부가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하게 되면 다시 집으로 오는 것으로 하고 분리를 했다.

생활치료센터로의 배치가 있기 전까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은 초조함의 시간이었다. 혹시라도 누군가 '여기 확진자가 있다', '우리 아파트에 확진자 가족이 생겼다'라는 소문이라도 날까봐, 확진자라고 낙인이라도 찍힐까봐 괜시리 걱정하면서 집에 머물렀다. 집에 있는 동안 경기도역학조사관의 전화로 동선을 다시 체크하고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고 그 사람들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 통보를 하게 되었다. 밀접접촉자는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신 사람들이다.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내려야하는 상황에서 만난 사람들이 밀접접촉자가 된 것이다. 우리가족과 만난 밀접접촉자는 모두 5명이다. 정신이 없다. 혹시 또 밀접으로 만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내야하고, 혹시 마스크를 언제 벗었는지 기억해내야만 했다. 그 다음날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자세한 일정과 준비물, 우리부부가 집에서 나가고 소독을 어떻게 진행할지, 또한 차를 타고 검사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탔던

차량도 소독을 해야 한다고 차량의 위치와 차키를 집 안 어디에 둘 것인지 집 비밀번호와 함께 미리 약속을 하고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틀만에 집을 나서면서 혹시라도 누군가 마주치면 어쩌지 걱정하면서 계단을 이용해 내려갔고 이송차량은 아파트로 들어오지 않고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이면도로에서 우리부부를 태우기로 했다. 사람들을 만날까봐, 혹시 사람들이 동요할까봐 배려하는 보건소의 친절한 안내는 많은 위안을 주었다. 사실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이제 보건소직원 밖에 없었다. 그분들은 우리들이 혹시라도 걱정하고, 불안해 할까봐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해주었고, 그 안내를 받는 우리가족은 그나마 안심이 되고 그 말을 따르면서 마음이 진정되어 갔다.

생활치료센터는 문봉로에 있는 삼성글로벌캠퍼스였다. 보건소직원들의 세세한 안내로 마주치는 사람없이 생활치료센터에 도착했고 도착해서는 의사의 문진과 엑스레이 촬영, 코로나증세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한 후에 입소를 했다. 2인 1실이어서 우리부부는 함께 방을 쓰게 되었다. 침대두개, 세세하게 구성된 기본생활용품의 지급, 화장실 하나 샤워실이 구비된 방이었다. 이제 분리가 되고 우리들이 관리되는 곳으로 들어서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나마 코로나 증세는 약간의 두통과 약한 감기기운, 미열 정도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아들도 이곳으로 옮겼지만 만날 수는 없고 전화통화만 했다. 이제 이곳에서 잘 지내다가 나가면 된다. 그 동안에 걱정했던 사람들, 우리와 마주친 사람들이 무사하길 바라면서 치료센터 생활이 시작되었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세끼의 도시락이 제공되었고 하루에 두 번 혈압체크, 열체크, 산호포화도 체크를 한다. 간호사의 전화, 의사의 전화를 받으면서 상태를 체크한다. 혹시 불편한 곳이나 상태가 안 좋아 지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바깥에는 하루에 한번 구급차로 확진자들이 입소하고 의무경찰차가 상주하여 숙소를 지키고 있었다. 아침시간에는 격리가 끝난 사람들이 퇴소하기도 한다. 열흘간의 숙소생활은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손길로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었다. 의료진들, 이송하는 구급대원들, 보건소 직원

들 등등 수고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 손길과 보호를 받고 보니 너무 너무 고맙고, 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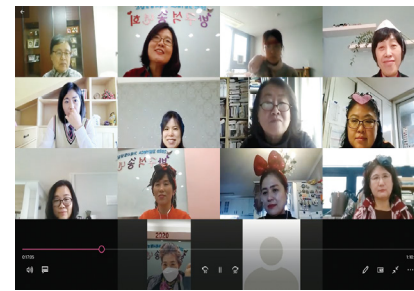
생활치료센터에서 제공된 식사

들의 세심한 일처리와 배려로 우리나라의 위기대처 능력이 발휘되고 있음을 세삼 깨닫게 되었다. 세상이 변한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노력과 일처리를 보면서 우리의 의료체계와 행정체계가 얼마나 성숙되었는지, 시행착오를 통해 하나하나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개혁과 변화가 있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자가격리센터로 갔던 딸은 집으로 돌아와 자가격리를 했고 보건소에서는 외출을 할 수 없는 자가격리자를 위한 필요물품, 음식들을 제공하였다. 결국 자가격리 중에 딸은 열이 올라 다시 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네 식구가 확진자가 되어 각각 생활치료센터생활을 했다. 거의 10~13일의 시간을 보낸 후에 퇴소를 하게 되었다.

국가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우리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까봐 경기도 심리지원센터에서 전화로 우리들의 심리를 체크해 주었고, 보건복지부통합심리지원단에서 심리상담도 하고 있었다.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퇴소 후 우리가족은 건강하게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다행히 우리가족만 확진이 되고 우리가족으로 인한 감염은 생기지 않았다. 결국은 우리가족의 감염경로는 밝히지 못했다. 코로나 확진자의 생활을 통해 느낀 것은 누구나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고,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분들을 구별하지 않고, 잘 치료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엄청난 배려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것,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다. 모두들 건강하게 코로나시절을 잘 넘기길 바란다.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자원봉사자 송년회]



고양YWCA가정폭력상담소는 지난 12월 18일(금) 상담소 실무자들과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방구석 송년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만남이 불가능해 ZOOM을 통한 비대면 송년회 ‘방구석 송년회’를 진행했다. 다른 해보다 상담소에서 모이거나 만나는 일이 줄어들어 서로 아쉬워하던 중 온라인으로나마 얼굴을 보며 한해를 돌아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직장맘복귀 프로그램]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에서는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맘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육아에 지친 직장맘들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문제, 복귀 후 업무적응 등 여러 가지 갈림길에 서있는 직장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동화책을 활용한 집단상담 및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기 돌봄 시간을 가졌다.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지원사업]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1월 19일(화)부터 2월 25일(목)까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가정 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증가로 인해, 양육 부담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 지원하고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집콕놀이1, 집콕놀이2, 도시락수다방1, 도시락수다방2 4개의 프로그램 각 2회기씩 총 8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집콕놀이’는 부모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집콕놀이 교구를 배부하고, 교구를 활용, ‘도시락수다방’은 요리재료 키트를 미리 배부하여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과 제공된 도시락을 먹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사스트레스 해소방법을 공유하고 양육코칭 전문가에게 양육코칭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집콕놀이 1회기는 원예활동, 2회기는 마술배우기, 도시락수다방 1회기는 도시락만들기, 2회는 스트레스해소방법 공유, 부모양육코칭으로 구성 되었고, 프로그램 8회기 모두 양방향 소통매체(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Y가족 이야기

- 고양YWCA - G마크 농식품활성화 및 소비자운동 경기도지사상 박선영 과장 (2020.12.4.)
-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 퇴사 임송이 (2021.1.8.) 입사 임민아 (2021.1.18)
- 고양시여성의 쉼터 - 정년퇴임 송미숙 (2020.12.31) 입사 박혜정 (2021.2.17)
-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 퇴사 허진(2020.12.31) 이선숙(2020.12.31), 입사 김주아(2021.1.5) 김미정(2021.1.5)